시각예술분야

○ 일시 : 2014. 12. 17(수) 10:00~22: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다목적실
○ 심의위원 : 고충환, 김성연, 심상용, 양정무, 정귀원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시각예술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등 총 8개 유형의 사업을 신청받아 심의하였다. 8개 사업유형의 총지원신청 건수는 344건, 지원신청 총액은 13,617백만 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건의 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등의 사업계획자료 일체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 토론을 통해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대안공간과 사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본 사업에는 총 77건이 접수되어 36건을 지원결정 하였다. 각 공간이 가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공간의 현재 위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대안공간의 경우, 기존활동이 정체되어있거나 환경 변화가 커서 과거와는 달리 활동상황을 관망해야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였고, 대신에 신규진입 장벽은 낮춰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공간을 신규 선정하였다. 대안공간과 관련한 논의는 지금도 정체된 활동 속에서 여전히 대안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함께, 그럼에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일부 대안공간의 경우, 전년도 결과보고서가 미제출된 상태이거나 최초 계획이 축소되는 등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평점을 받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립미술관의 경우, 기업 관련 미술관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췄으며, 지역의 다양한 미술환경 조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거점 미술관과 대안적 성격의 공간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였다. 다만 지역 사립미술관은 전시내용의 질적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키고 사업을 전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각예술행사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사업은 총 42건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그 중 11건을 지원결정 하였다. 전국 규모의, 전문가와 비전문가, 미술 이해당사자와 일반 대중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고 내실이 있는 행사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심의였다. 특별한 담론생산 없이 일반적인 단체전이나 그룹전의 신청이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대규모 국제전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새로운 비전이 없는 경우에 탈락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시든 행사든 그 개념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들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계획이 충실한 경우에도 그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와, 계획만 있고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거나 아예 탈락되기도 했다. 그 와중에서도 행사의 내실과 함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전시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여 현대미술 관련행사와 미술사적 의미를 갖는 전시행사의 균형을 고려했다.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사업지원>

총 39건이 신청된 본 사업은 13건을 지원결정 하였다. 심의에서는 미술비평담론의 지속적 확장을 위한 포럼 영역에 우선을 두고, 담론 확장 및 주제 개발에 관련된 영역에 큰 배점을 주었다. 가급적 연속지원을 지양했고, 신규로 진입하는 단체 대한 활로를 열어 본 지원 사업을 전문화·다변화·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포럼의 경우, 비평 활성화 사업을 지원 육성한다는 사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단행본의 경우, 단순히 기 발표된 자료들을 묶어내는 경우를 지양했고, 연구목적이 뚜렷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주었다. 인터넷을 주된 장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향후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실질적 성과나 실효성을 가려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시각예술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82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8건을 선정하였다.

심의는 신청 사업의 국제적 파급력, 교류대상과의 적절한 예산분담과 협력,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작가의 예술성과 신청단체의 기획역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개인 작가의 해외 전시 참여의 경우 작가의 예술적 역량을 우선 고려하였으며 세부 장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장르 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진행되는 해외 주요 비엔날레, 아트페어, 페스티벌에 전시를 기획하여 참가하는 사업과, 해외 유수 미술관에 초청된 개인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국제적 파급력이 인정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향후 연계성과가 기대되는 국제 총회, 포럼, 컨퍼런스 등의 국제행사에도 지원을 결정하였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시각예술분야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4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없었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는 2016~17년도의 본 사업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본사업의 예상되는 국제적 파급력을 고려하였으나 신청단체의 적시적 사업 수행능력, 준비계획의 구체성 또한 중점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심의에서는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시각예술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48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14건을 선정하였다.

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자의 예술적 역량을 심의의 중점적 기준으로 삼았다. 지원자의 역량 검토를 위해서 지원자가 사전에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레지던스 측에서 작가에게 제공하는 교류 조건이 탁월한 사업을 우선 고려하였으며, 지원신청서 검토를 통해 해당 레지던스에 참가하는 목적이 명확한 사업 또한 고려하였다. 반면 해외체류 중이거나 장기간 연속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교류의 의미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지원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레지던스 체류기간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였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시각예술분야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45건이 신청되었으며, 금번 1차 지원심의에서는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참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베타니엔 스튜디오 참가의 경우 현지 기관과 예술위의 협약에 따라 예술위 측에서 1차 심의를 진행하여 일정 수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들의 영문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심의를 통해 베타니엔 측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 심의에는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참가 1차 후보군 6명을 선정하였다.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심사는 예술적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심의위원 전원은 작가가 제출한 포트폴리오 및 지원신청서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 파견시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역량 있는 작가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금번 시각예술분야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7건이 신청되었으며, 금번 1차 지원심의에서는 호주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는 기획자의 역량, 참여 작가의 프로그램 적격성, 프로젝트의 참신성과 구체성등을 고루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획자의 작업계획과 참가작가의 작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참가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고려하여 총 1건을 선정하였다.

향후 프로젝트 기획의 구체성, 세밀한 현지 작업 계획, 기획의도에 맞는 다양한 작가군 구성을 위한 기획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각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